

# 日本の 西洋軍事理論의 導入・發展에 관한 研究 (海軍戰略思想을 중심으로)



徐羅伐軍事研究所

所長 李 鍾 學\*

## 目 次

- I. 머리말
- II. 陸軍參謀本부와 獨逸軍事理論의 導入
- III. 海軍의 英・美 軍事理論의 導入과 發展
- IV. 日本의 國防과 陸主海主 論爭
- V. 海戰要務令과 新軍備計劃論
- VI. 맺는말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半島國이며, 이것은 水陸兩棲國임을 뜻한다. 그리고 현대전쟁은 立體戰을 수행해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군의 간부는 軍事

\* 공군사관학교 및 공군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업, 공군대학 교수부 학처장 및 육·해·공군대학 강사, 경희대 및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韓國軍事史學會長, 국방대학원 교수, 日本 클라우제비츠學會 명예회원(現)

理論 全般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 후의 우리의 국방체제 속에서 해군을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전략적 관점을 부여하는데 불가결한 초석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日本의 육·해군이 明治維新後, 西洋의 軍事理論을 어떻게 도입·발전시켜서 성공했고 또 패망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軍事理論(military theory)<sup>1)</sup>이란 군사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概念, 範疇, 命題, 法則 또는 一般理論을 포함한다. 옛날의 군사문제연구의 초점은 ‘戰爭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戰勝할 것인가’하는 두 가지 문제였다. 前者에 대한 해답은 때때로 戰爭哲學이라 불렀고, 後者는 戰略이라고 불렀다. 戰略이란 전쟁수행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군사작전에 있어서 군대의 운용을 의미했다. 군사이론이라 한다면, 적어도 다음 네 가지의 기본적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즉,

① 戰爭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결국 전쟁의 원인, 성격, 형태의 분석과 전쟁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검토,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연구, 거기에다 여러 가지 전쟁형태의 발발의 방지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포함한다(戰爭哲學).

② 어떻게 戰勝하는가

전략에 주요 초점을 둔 軍事術(military art : 전략·작전술 및 전술에 총칭)의 분석, 전쟁의 기술적 발전, 보급체제 및 군대의 조직, 운영, 교육문제를 포함한다(用兵理論).

③ 어떻게 戰爭準備를 하는가

군사교리의 형성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즉, 未來戰爭의 개념과 이에 관련하는 정치·군사전략 그리고 국가와 군대의 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다(建軍理論).

④ 어떻게 戰爭을 抑制할 것인가

抑制의 理論과 戰略이 포함된다(抑制理論).

---

1) Julian Lider, Military Theory(London;Gower Publishing Company, 1983), pp. 1~2 및 pp. 14~15.

## II. 陸軍參謀本部와 獨逸軍事理論의 導入

1872년 2월 병력 1만명을 가지고 天皇直屬의 군대 즉, 육군을 창설했다. 육군은 당초 프랑스식에서, 그후 보불전쟁(1870~71)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프러시아·독일식을 채택했으며, 해군은 英·美식의 군사이론과 兵制 등을 도입했다.

1905년 독일의 참모총장 슈리펜 元帥는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1832) 제5판의 출판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실제로 클라우제비츠가 뿌린 씨는 1866년 및 1870~71년의 諸 戰役後에 있어서 풍부한 과실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전역에 있어서 발휘된 독일군의 用兵術의 우수성은 근본적으로 「戰爭論」에서 비롯 되었다. 더구나 유능한 군인들의 다수는 이 책에 의해 교육되었던 것이다. 또한 실제로 몰트케가 ‘전략이란 수단 체계이며, 지식의 실제에의 응용이다’고 말한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정신을 전한 것이다. 몰트케의 총명한 展開는 클라우제비츠의 충실한 저술에 바탕을 두고 행한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출간의 명예를 가지게 이르렀다.<sup>2)</sup> 그렇다면, 과연 몰트케는 「戰爭論」을 충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理解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일까?

「戰爭論」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완성의 저술이며, 그도 1837년 8월 「만약 내가 빨리 죽어서 이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현재의 형태로 남긴다면, 그 것은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思考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오해를 불러 들이는 미숙한 표적이 되리라」고 覺書로 적어 두었다. 그후 오해를 불러들인 원인은, 당초 그는 적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절대전쟁의 입장에서 제1권에서 제6권까지 원고를 완성했지만, 그 집필 과정에서 전쟁사의 연구에 의해 목표를 제한한 현실전쟁으로 입장을 변경한 데 있었다. 그는 현실전쟁의 입장에서 제7·8권과 제1권 1장(완전한 것으로 간주함)을 완성하고, 그 외의 원고는 수정을 하지 못하고 요절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다.<sup>3)</sup> 환언하면, 「戰爭論」에는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의 입장이 雜居하고 있는 데서 오해와 문제점이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의 절대전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2) クラウゼヴィッツ, 「戰爭論」(上卷), 馬邊健之助譯(東京: 南北書院, 1931), p.22.

3)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69~71.

「전술 혹은 전투이론 : 전쟁은 많은 여러 가지 會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會戰에 있어서 적을 패배시키는 기술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守勢에 있는 경우에 결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지 않는 것이 기초 원칙이다. 방어는 언제나 공격을 위한 준비이다. 攻勢에 있어서 병력의 집중, 결정적 목표에 대한 집중공격 그리고 기습은 성공의 최대의 요결이다.

전략이란 ‘會戰과 戰爭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개의 전투를 조합하는 術이다’고 定義할 수 있다. 전쟁은 적군의 격멸, 적의 자원의 掠奪, 적 국민을 默從시키는 세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적의 주력부대, 首都, 중요한 要塞나 보급시설을 분쇄하도록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대승리를 하여 수도를 점령하면 여론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원칙은 모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 하는 일이다. 여기서 철저함을 결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령 승리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승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4)</sup>

클라우제비츠에 있어서 전쟁에 관한 문제는 평생의 연구과제였으며, 그의 만년의 22년간(1808~1830) 정열과 노력을 기울여 저술한 「戰爭論」에서 究명한 결론인 현실전쟁이란 무엇이며, 왜 그는 절대전쟁에서 현실전쟁으로 입장을 변경했을까?

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단순한 정책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란 다만 하나의 정책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진실한 정치적 도구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활동의 계속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명백하다.<sup>5)</sup>

② 전쟁에 의하여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또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前者는 政治目的이며, 後者는 作戰目標이다. 이 주요한 원칙에 의하여 군사행동의 방향, 필요한 수단의 규모와 노력을 규정하고 또 작전행동의 상세한 부분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군사작전의 자연적인 목표는 적군의 타도이며, 개념의 논리적 엄밀을 기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 이외에 다른 목표가 존재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이론적 개념이 그대로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의문의 장벽은 전쟁이 국가

4) Peter Paret, Clausewitz and The State(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p.194~196.

5) Carl Von Clausewitz, op.cit., p.87.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많은 요소 즉, 여러 가지 힘과 조건에 의하기 때문이다.<sup>6)</sup>

③ 나는 지금까지 전쟁과 개인에 미치는 사회의 利害關係의 相違點을 구별하여 논의했지만, 이 相違는 인간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相異한 2개의 요소의 통일체라는 것은, 전쟁은 정치적 활동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것만으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쟁의 기원은 정부 및 국민의 교섭인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즉, 전쟁의 개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적 교섭은 단절되고, 이것과 전연 다른 상태가 나타나며, 그것은 자신의 법칙에 따른다고.<sup>7)</sup>

④ 우리들은 반대의 입장에 있다. 즉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한 정치적 교섭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른 수단을 가한'이라 했는데, 다음 사항을 밝히려 하기 때문이다. 전쟁 자체는 정치적 교섭을 단절치 않으며 또 전연 다른 것으로 轉化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軍事에 있어서 모든 것이 찾아가는 주요한 선은 전쟁을 뚫고 그 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 교섭의 요강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은 그 자신의 文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그 자신의 論理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sup>8)</sup>

⑤ 요컨대 최고의 수준에 있어서의 兵術은 정책이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외교적 각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전쟁에서의 중요한 군사적 전개나 계획은 순 군사적 판단의 문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有害한 것이다.<sup>9)</sup>

①~⑤까지는 「戰爭論」의 主要思想을 소개한 내용이다. 그는 이론적 개념의 전쟁, 즉 절대전쟁이 그대로 현실전쟁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는(②)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그 문제를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근본적 입장의 차이, 즉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양국의 정치적 교섭이 단절되고, 전쟁

---

6) Ibid., p.578.

7) Ibid., p.605.

8) Ibid., p.605.

9) Ibid., p.607.

은 스스로의 法則(文法)인 적군의 타도·격멸로 향한다는 견해 ③은 일반적으로 將帥들이 좋아하고 또 바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전쟁은 스스로의 文法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전쟁 이외의 정책에서 주어지는 종속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論理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④). 따라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다만 정책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①).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政策과 戰爭遂行의 본질적 통일에 대한 기본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빈번하게 잘못 해석되어 왔었다(④). 그리고 그는 전후의 평화의 유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④). 이것은 軍事思想家로서의 그의 명성을 높이는 심오한 사상이라고 필자는 평가하지만, 이 思想은 몰트케를 비롯하여 그후의 독일 참모본부의 수뇌자들에게는 별로 理解되지 않았거나 혹은 달가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④⑤).

필자는 普奧戰爭(1866)과 普佛戰爭의 작전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전자는 클라우제비츠의 현실전쟁의 입장에서, 그리고 후자는 절대전쟁의 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몰트케는 작전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전후의 평화유지의 문제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몰트케보다는 비스마르크 首相이 「戰爭論」의 핵심사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明治陸軍의 軍政에 공헌한 桂太郎(陸軍大將·首相)은 보불전쟁 직전과 그후 수년간 독일에서 배웠고, 또 軍令上の 대표자인 川上操六(참모총장)은 전후 2회의 유학에 의해 독일 參謀本部에서 실제의 근무를 체험했고 그동안 몰트케의 지도를 받았다. 1883년의 육군대학교의 개교도, 몰트케의 참모양성의 방법에서 배운 것이었다. 桂는 육군에 있어서 軍政과 軍令의 분립화, 참모본부의 독립 등을 추진하여 공적을 세웠고, 川上和 田村怡興造(참모차장)는 近代 用兵理論을 확립하여 참모본부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데 성공했다.<sup>10)</sup>

참모본부장이 직할하는 육군대학교는 1883년 2월에 개교했으며, 독일의 몰트케 參謀總長이 추천한 맥켈 少領이 육대의 교관으로 부임한 것은 1885년 3월이었다. 그는 3년간 육대에서 전술교육을 담당했고 또 그의 학술 교육법은 60년간의 육대에

10) クラウゼヴィッツ 研究委員會譯, 「戰爭なき自由とは」(東京: 日本工業新聞社, 1982), pp. 521~522.

일관하여 흘렸고, 육대교육의 원점이 되었던 것이다.<sup>11)</sup> 그가 담당한 과목은 戰術實施, 兵棋, 參謀旅行이었으며, 軍事理論의 관점에서 본다면, 用兵理論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作戰術, 戰術뿐이며, 군사전략, 국가전략 그리고 戰爭哲學은 가르치지 않았다.

日本の 참모본부는 독일의 참모본부로부터 충실히 업무수행의 방법을 배웠다. 몰트케는 새로 등장한 철도 및 무선전신기를 활용한 병력집중(分進合擊의 方式)의 용병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즉 「전쟁은 스스로의 문법(원칙)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는 갖지 않는다.」는 軍事에 대한 政策優位の 軍事思想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軍國主義에의 길을 열었다. 독일에서는 1870년 이후, 군국주의(militarism)란 국가생활에 있어서 文民에 대한 군인의 지배, 군사적 요구의 과도한 우월, 군사적 思考, 精神, 理念 및 軍事的 價値 尺度의 강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sup>12)</sup>

일본의 참모본부와 군수뇌들도 군사에 대한 정책 우위의 군사사상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統帥權의 독립을 내세워 군사는 완전히 정책(國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군국주의를 흘러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말았다. 또한 그들은 독일의 용병술을 도입·발전시켜 淸日·露日戰爭에서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用兵理論에 속하는 것이고, 높은 차원의 국가전략이나 전쟁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1차대전 이후 전쟁의 성격은 지구전·총력전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의 작전술에만 매달리는 태도와 경향 때문에 패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III. 海軍의 英·美 軍事理論의 導入과 發展

근대적인 해군 군사이론은 함선 그 자체가 풍향이나 조류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해 좌우되고 또 함대 행동에 있어서 시간적 정확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한, 확고한 과학적 기초 위에 조직적인 연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 蒸氣船의 출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마한 提督은 이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생각컨대 海軍兵術의 진보가 늦은 것은, 帆船의 원동력이 불확실한 데 기인하는 바 많을

11) 上法快男編, 「陸軍大學校」(東京: 芙蓉書房, 1973), p.265.

12) Alfred Vagts, a history of militarism, Meridian Books, Inc., 1959, p.14.

것이다. 당시의 육군 장성은 거리를 行軍 度數로 환산할 수 있었지만, 해군계독은 거리를 日數로 환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증기기관은 함대의 행동을 비교적 확실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逆風이나 逆潮流는 단지 수렁길(泥路)이나 산길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거리의 추산에 있어서는 推進機의 회전수가 陸兵의 步數보다도 정확한 표준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海軍兵術의 연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sup>13)</sup>

해군의 군사이론, 즉 해상전략의 연구가 학문으로서 理論體系를 갖추게 된 것은 1890년 미국의 마한에 의한 「海上勢力史論」과 같은 해에 출간된 영국의 코름에 의한 「海戰論」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각국에서는 그 나라의 국정에 따라 해군 전략론이 출간되었는데, 대별한다면, 美·英·日 등의 制海權 思想과 獨·佛·露 등의 육군국에서의 沿岸防備·통상파괴·육군엄호 등을 주로하는 思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동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相異한 戰略構想과 무기·장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마한의 「海上勢力史論」 및 「海軍戰略論」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코름의 저서 「海戰論」을 소개코자 한다.<sup>14)</sup>

코름은 그의 저서에서 '적어도 정식적인 분석이나 정식의 논평에 적합한 유일한 전쟁은 陸戰만이고, 海戰은 이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종래의 일반적인 오류를 시정하고 海戰史上에도 一定不變의 원칙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는 최초로 근세에 있어서 海上軍事問題가 독립적인 意義를 가지며, 거기에 상응하는 해군전략의 기초나 원칙이 定形的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6세기 중엽 이후이며, 주로 상업자본의 발달에 의한 거대한 해상무역의 창출과 조선술의 진보에 의한 원양항행용 선박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코름은 그후의 海戰史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여, 거기서 海軍戰略上の 諸 要素의 발생, 성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특히 그 중추인 制海權 概念의 확립을 역사적으로 그 기초를 확립했다. 그 외도 함선의 兵力區分과 戰列組織의 문제, 통상의 보호 또는 공격, 艦種과 전술과의 관계의 문제를

13) 마한, 「海軍戰略論」, 李充熙·金得柱譯(서울 : 同元社, 1974), pp.110~111.

14) 小山弘健, 「軍事思想の研究」(東京 : 新泉社, 1970), pp.138~140.

논의하고, 더욱이 제해권의 내용(수단 혹은 목적으로서)이나, 육지공격과 제해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를 가했다. 코름의 결합은 現存 艦隊思想(fleet in being)를 중시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존함대의 기원은 1690년 英佛함대의 비취헤드海戰에서, 영국의 아더·허버트提督이 결전을 회피하고, 전장 철퇴를 하여 본국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그 신문에서, “우리가 현존함대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적은 함부로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The enemy can not invade us while we have a fleet in being)고 변명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즉, 영국의 함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fleet in being) 그 자체가 프랑스로 하여금 영국을 함부로 침공해 오지 못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마한은 異議를 제기했다. 즉, ‘코름은 海軍兵力-반드시 우세를 요하지 않고 균형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도-의 단순한 존재를 가지고 海·陸軍 合同의 遠征을 중지시킬 이유가 된다는 주장은 극단에 흐른 감이 있다고 씌어져 있다. 마지막 독후감의 인상을 요약하여, 이 설은 모험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나폴레옹의 올바른 金言을 무시한 것이다 ……」<sup>15)</sup>

20세기 초기 해군국인 영국과 미국의 해군 전략가들이 논의의 불꽃을 튀기던 ‘現存艦隊의 전략사상에 대해 西厓 柳成龍은 懲毖錄(1603년경)에서 이 문제를 명쾌히 해답하였다. 즉, 함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적의 행동을 저지 혹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의지가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적을 견제하다가 지휘를 엿보아 기습으로 다행히 한번 승리한다면, 상륙했던 倭兵(육군)은 내륙 깊이 쳐들어 오지 못한다.’고<sup>16)</sup>

日本海軍은 청일전쟁의 부산물의 하나로 근대적 군사이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전쟁에서의 전술적인 체험과 외국에서의 풍부한 해군사상의 이론적 성과가 결합하여 일본에서도 해군 전략사상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한 것은 3국 간섭이 가져온 굴욕감과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열강국의 강압적인 요구의 배후에는 강력한 해군력의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적었다. 에도시대(江戶時代) 300년간, 쇠국체제하에서 완전한 농본주의의

15) 마한, 「前掲書」, p.348.

16) 李鍾學, 「韓國軍事史序說」(경주 : 서라벌군사연구소, 1990), pp.245~248 참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방상 육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해군의 중요성은 알지 못했다. 해군 대신 山本權兵衛는 일본과 지리적 환경이 유사한 영국에 佐藤鐵太郎 소령을 1899년에 파견하여 3년 가까이 연구케 하여 귀국해서 「帝國國防論」(1902)을 집필케 했고, 이것을 더 부연하여 「帝國國防史論」(1910)으로 발전시켰다. 佐藤의 國防 및 軍事理論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① 國防의 本義는 國體를 옹호하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겨다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고, 또 軍備의 本義도 이에 따라야 한다. 국방의 실제적 임무는 국가의 안녕, 행복의 유지와 증진, 통상무역의 보호와 확장 그리고 타국의 간섭을 허용치 않는 데 있다. 국난을 당해서도 적병이 국토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평시와 같이 평온하게 통상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② 我國의 국방은 유럽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상을 장악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海島國의 정복은 이룰 수 없으니, 海戰에서 승리할 수 있는 軍備를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방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日本에 있어서 해군은 死活問題이나, 육군은 利益問題에 지나지 않는다.

③ 軍備의 목적인 본국의 방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制海的 武力을 충실히 하는 데 있다. 육군도 확장하고 또 해군을 확장해도 실제로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것은 커다란 잘못된 견해이다. 국가의 생존상 필요치 않는 군비에 대해 무제한으로 국력을 경주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自衛에 멀고 侵略에 가까운 것은 반드시 亡國의 기본이다.

④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세계적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적 발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대륙방면으로 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적 사업의 발전을 꾀하는 대륙의 여러 국가는, 예컨대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원히 세계적 대국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일본과 영국처럼 섬나라는 세계적 대국으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하늘이 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여 이 天惠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佐藤에 의하면, 일본의 국가정책은 自衛와 海洋의發展을 약속하는 해양정책을 채택해야지, 결코 대륙에 있어서 獨力으로 러시아와 대결하는 迂策을 취해서는 안 된

17)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 上·下卷(東京: 原書房, 1979) 參照

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明治政府는 1887년경부터 ‘開國進取’를 國是로 하는 대륙정책(침략정책)을 채택하여, 1945년까지 58년간의 결과는 전쟁과 무조건 항복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 후, 오늘날까지 50년 가까이 해양정책을 채택함으로써 평화·번영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佐藤의 해양정책에 대한 先見之明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진다.

秋山眞之 大尉는 1887년부터 3년간 미국유학의 명을 받았다. 그는 당초 美 海軍 大學에 입교를 원했으나, 외국장교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한 提督을 찾아 가서 독학으로 하는 해군전술의 연구법을 문의했다. 마한은 秋山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첫째 : 과거 戰史의 실례를 모두 조사하라. 戰史는 고대나 근대, 해상이나 육상을 모두 연구하면서 勝敗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둘째 : 권위있는 大家의 兵書를 읽음으로써 그의 의견, 체험 그리고 法則과 같은 것을 터득하라. 그렇게 하면 점점 당신 자신의 생각이 생겨날 것이다. 나도 그런 방법으로 독학으로 연구했다. 먼저 조미니의 「兵術論」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秋山은 마한의 助言에 따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연구를 계속했으며, 당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海軍 軍事理論의 思想體系를 비판적으로 섭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발발했던 美·스페인전쟁을 觀戰하며 삼손 提督 이하 美 海軍 首腦部의 작전지휘를 보고 또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 하겠다. 또한 1899년 北大西洋 艦隊 旗艦에 탑승하여 각지를 순항하면서 많은 견문을 넓혔다. 후에 그가 體系를 수립한 해군전략·전술은 재미중에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 특히 그가 애독한 병서는 조미니의 「兵術論」, 부루메의 「戰略論」 그리고 「野島流海賊古法」 등이 있었다.<sup>18)</sup> 그는 미국유학을 끝마치고 귀국하여 노일전쟁을 전후하여 두번 해군대학교 교관을 역임하였고, 강의제목은 「海軍基本戰術」, 「海軍戰務」, 「海軍應用戰術」 그리고 「海軍戰略」이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① 海軍戰務 : 이것은 영어의 Logistics이며 兵術을 실시함에 있어서 군대를 지휘 통솔하고 혹은 행동, 생존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육군에서는 「帥兵術」이라 했다. 내용은 명령하달, 보고 및 통보, 통신, 항행, 정박, 수색 및 정찰, 경계, 봉쇄, 육군의

18) 生出壽他, 「秋山眞之のすべて」(東京 : 新人物往來社, 1987), pp. 114~118.

19) 「上掲書」, pp. 121~127.

호송 및 상륙엄호, 급여, 艦隊 戰務用 圖書의 分類 등이 쓰여져 있다. 이 가운데 수색 및 정찰의 항에 「수색의 중별 및 방법」이 적혀 있는데, 해상 수색의 방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搜索列」과 「搜索弧」를 소개하고 있다. 「수색호」란 수색함을 출항시켜 반드시 적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吉松茂太郎이 최초로 프랑스海軍에서 시작한 것을 도입했으나, 秋山은 미국유학중 웬라이트 少領이 「美 海軍協會報」에 게재한 논문, 「수색호」(Search Curves, Some Applications and Limitations)를 읽고 이것을 더욱 연구한 것이었다.

이 수색법은 후에 발틱함대를 발견하기 위해 뒀던, 수색망으로 적 함대를 발견함으로써 위력이 실증되었다. 港灣에 있는 적 함대의 봉쇄에 대해서도, 미국 유학중, 미·스페인전쟁의 관전을 통해 주의깊게 관찰했으며, 그의 보고서의 결론은 봉쇄를 확실하게 속행하기 위해서는 봉쇄함대의 병력은 적어도 적에 대해 2배의 우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봉쇄의 방법에는 직접봉쇄와 간접봉쇄의 구분이 있다. 직접봉쇄란 봉쇄함대의 주력이 敵前에 나타나서 위력을 가지고 직접 적을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봉쇄란 주력을 먼 곳에 두고 적에게 나타내지 않으며, 다만 경계대를 가지고 적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봉쇄에 있어서 봉쇄함대 주력의 근거지는 적 항구로부터 50~70해리의 지점을 택하고, 그 위치는 적의 출동하는 방향에 두어야 한다. 봉쇄의 위력을 증대하기 위해, 港外에 機雷 혹은 장애물을 부설하는데, 이것은 모두 第一哨線내에 하며 …… 그는 노일전쟁때, 旅巡港 封鎖作戰을 실시하면서 그대로 적용했다.

② 海軍基本戰術 : 秋山은 나폴레옹, 부루메, 吳子 등의 말을 인용했는데, 특히 마한의 다음 말을 인용했다. 즉, 戰史를 講究하는 장교는 전술의 변화는 무기의 변경 후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전술의 변경과 무기변경의 사이)가 너무 길다는 점을 관찰해야 한다. 아마도 그 원인은 무기의 개량이 개인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전술의 변경은 守舊的 多數 將校의 습관을 타파해야 하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성취할 수 없는 데 있으며, 이것은 실로 통탄할 커다란 병폐이다. 이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만 公明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옛 전술의 각 변경을 관찰하고, 지금의 신 함선 및 신무기의 세력의 정도 여하를 고찰하여 그 질에 준하여 이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고 또 그 신전술을 구성하는 데 있다. 군인이 이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며, 언제나 이 방법을 강구하는 자는 반드시 戰場에 임하여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옛 역사가 명시하고 있다.

秋山 이후 일본의 해군전략·전술·전사의 연구는 이런 마음가짐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전술의 내용은 전투력의 요소, 전투단위의 본능, 함대의 대형, 함대의 운동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 시점(1903년 4월)까지의 기본전술을 집대성하고 또 명확히 했던 것이다. 특히 기본전술은 '유형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유형적 方術을 연구하는데 멈추고, 無形의 心術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心術에 관한 것은 응용전술에서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 秋山の 가장 자신있는 것은 「응용전술」임을 말하고 있다.

③ 應用戰術 : 秋山은 응용전술의 緒言에서, 각술상의 편의상 설정한 명칭으로 마치 기본화학, 응용화학 혹은 기본 삼각형, 응용 삼각형과 다르게 부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屈敵主義를 주장한다. 섬멸전이 아니고, 적의 저항력을 없애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전투의 목적으로 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전투에 있어서, 공격의 正奇와 虛實을 논하고 있다. 正法만의 공격은 그 전투가 다만 힘만이 되어, 가령 싸움에 승리해도 서로 살상자가 많아서 많은 병력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奇法을 병용해야 한다. 이 正奇的 併合戰法은 예컨대, 正은 晝戰이고, 奇는 夜戰 혹은 正은 함대결전이고 奇는 기습이다.

노일전쟁때까지의 일본해군은 마한과 코름의 전략사상을 충실히 신봉하여 실시해왔다. 그후 청일·노일전쟁의 교훈과 동양병학 등을 첨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군사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가 佐藤의 「帝國國防史論」이고 또 秋山の 「海軍基本戰術」, 「海軍戰略」 등이었다. 특히 秋山은 전술 강의의 서론에서 未來戰의 3차원적 양상을 예견하고 空軍 萬能論이 멀지 않아 戰艦 無用論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후 40년이 경과하여 太平洋戰爭에서는 戰艦 對 戰艦의 대결은 없었고, 항공타격전으로 막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航空主兵主義가 大艦巨砲主義를 압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군의 함선이 전연 필요없다는 견해는 물론 아님을 부언해 둔다.

#### IV. 日本의 國防과 陸主海主 論爭<sup>20)</sup>

1893년 5월 19일 해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軍令機關을 가짐으로 보조를 맞추게 되었으나, 육·해군의 군령기관의 戰時的 關係를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날 戰時的 양 군령기관의 關係를 명시한 戰時 大本營條例가 제정되었다. 이 條例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군령부장은 함께 天皇直隸의 군령기관이지만 사태가 급하여大本營이 설치되는 경우, 참모총장이 天皇의 참모장이 되어 陸·海軍의 작전을 종합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령부장은 참모총장의 예하에 들어가서 그 지휘를 받게 되어 법규로 陸主海從의 軍制가 성립되었다.

청일전쟁은 상술한 條例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1899년 1월 개정의 제안이 해군대신(山本權兵衛)에 의해 제출되어 동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참모장을 한 사람으로 하느냐, 두 사람으로 하느냐 그리고 국방계획에 있어서 육·해군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는 등 일본의 국방에 관한 본질적 문제를 논쟁하게 되었다.

육군은 육군이 主가 되고 해군이 從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군대의 존폐, 국가의 존망에 관한 輕重을 기준으로 하여 육·해군을 비교하면, 그 主幹은 육군이고, 해군은 輔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해군은 국토 외의 파도 위를 가지고 管區로 하고, 함선을 가지고 성립되기 때문에 태풍과 안개 등에 의해 영향을 심하게 받고 또 하물며 우세한 적을 만나 全軍이 모두 戰力을 잃게 되면 沿海는 적의 소유가 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면, 해군은 없어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하고 생존에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육군은 국토가 있고 또 국민이 존재하는 한, 황실을 보위하고 국가의 독립을 보지하는 자이고, 만약 섬멸되는 날이면 국가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시를 고려하고 국방을 관찰했을 때, 육군이 主幹이 되고, 해군을 輔翼으로 한다는 것은 事理상 당연하다. 그리고 육군을 가지고 建國을 하는 자는 많아도 아직 해군만을 가지고 했다는 자는 없다. 또 내외의 역사를 보아 전쟁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여도 아직 海戰을 가지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 자는 없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육군이며, 陸戰은 首戰이고 海戰은 支戰이다.

20) 伊藤皓文, “陸主海主論爭”, 『軍事史學』, 31號(東京, 1972), pp. 17~33.

해군은 육군이 ‘국민과 국토가 있고 육군이 섬멸되지 않는 한 국가는 보존된다’는 견해에 대해 반박하기를 이것은 오늘날 開明國에 있어서, 사회의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이를 가지고 국가병력의 유일한 요소로 보고, 다른 것을 인정치 않으려는 議論으로 이와 같은 思想은 아득한 옛날 사회의 조직이 극히 단순하여 민족단체의 목적은 다만 서로 물건을 쟁탈하고 살륙하는 데 멈추며, 상공업 등 경제상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人智가 유치하여 전투에 정교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白兵戰으로 결정하는 시대에는 적당하리라.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회가 발달한 상태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니 더 반박할 필요가 없다.

전쟁의 종국은 반드시 육군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국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本戰에서 主位를 점하는 것은 육군이라는 견해에 대해 해군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즉, 무릇 국방상 육·해군간에 어느 것을 主位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토의 위치와 국제관계상의 지위의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국토의 위치처럼 사면이 바다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攻守 어느 경우나 군대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制海權을 획득한 연후라야 한다는 것은 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적 경제책은 오늘날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萬國共通의 경제 즉, 국제적 경제의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오늘날 발달된 국가사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국가의 隆替는 거의 그 나라의 경제상의 盛衰에 따르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상에 관한 利害는 곧 국가의 利害와 일치하므로, 국방의 대방침도 이와 관련이 많다. 나라의 경제적 활동의 무대는 현재, 미래를 통하여 양양한 바다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國防의 主位를 육군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국방상 해군 만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육군이 서로 협력해야 국방을 완수할 수 있다.

佐藤鐵太郎은 두 가지 가정<sup>21)</sup> 즉, 韓滿에 파견된 육군이 敗하고, 해군이 승리하면, 그래도 국토는 온전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이 승리하고 해군이 패하면 육군이 승리했다해도 병참선이 끊어져 결국 패할 것이고, 또 적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육군의 정예부대가 소멸되었으니 곧 국토는 점령당하고 만다. 따라서 일본의 국방에 있어서 海主陸從을 주장했는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타당했으나, 실권은 육군이 장악

21) 佐藤鐵太郎, 「前掲書」上, p. 159.

하여 陸主海從의 자세로 국정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청일·노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했다. 일본이 패망할 때(1945. 8), 일본에는 육군병력이 약 550만(국내 240만, 외지 310만)이 있었지만, 본토 결전을 하지 못하고 항복했던 것이다.

國務와 統帥, 육군과 해군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국방상의 문제점은 결국 명치 초기, 육군은 대륙국가인 독일에서, 해군은 해양국인 영·미국에서 군사이론이나 군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데 원인이 있었고, 또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 思想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해석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전술 차원에만 관심이 있었다. 더 차원이 높은 전쟁 철학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일본의 패망과 직결되는 것이다.

日本에서의 陸主海主 論爭은 섬나라인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海主陸從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明治維新부터 敗戰때까지 陸主海從으로 일관되었다는 데 災難이 숨겨져 있었다. 이 문제는 통일후의 한국에 있어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半島國이기 때문이다. 대륙에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陸主海從의 국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대륙 접경국들과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海主陸從으로 貿易立國·海洋活用과 發展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한다. 마치 통일신라가 해양정책을 추구했듯이.

## V. 海戰要務令과 新軍備計劃論

日本海軍에 있어서 兵術(戰略·戰術)思想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894년의 淸日戰爭 後였으며, 완성된 것은 「海軍 演習教範」에서였다. 그후 1901년 秋山眞之 少領이 起草한 「海戰에 관한 綱領」이 골자가 되어 「海戰要務令」을 제정하여 해군내에 배포되었고, 노일전쟁(1904)때 적용되었다. 그후 1910년 제1차 개정을 했던 「海戰要務令」은 日本海軍의 兵術思想의 中核·骨子가 되었고 또 典範으로서 兵術思想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으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 「海戰要務令」은 전쟁형태의 변화(사회의 변화, 과학의 발달, 무기·군사기술의 발전 등)에 적응하여 조속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개정하자면 天皇에

까지 올라가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함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둘째 : 「海戰要務令」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이를 보관하는 책임자는 문서의 망실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용 희망자에게 차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따라서 병술사상의 보급, 개정 및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되었다. 「海戰要務令」의 실질적인 제정자, 秋山도 해군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한탄했다.

셋째 : 「海戰要務令」은 일본 해군의 해전의 福音的 教範 내지 이데올로기화되어 변혁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大艦巨砲主義에서 航空主兵主義로의 전환이 어려웠고 지연되었던 것이다.

1907년 「諸國國防方針」이 제정되었는데, 해군은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했으며, 침공해 오는 미국함대를 일본의 근해에서 격멸한다는 「用兵綱領」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청일전쟁·노일전쟁, 특히 대마도해전을 통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철저히 격멸했기 때문에, 그들의 兵術은 전통화 되었으며, 그것은 대함거포주의에 입각한 함대 결정사상이었다. 즉 일본해군의 對美作戰要領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침공해 오는 이 함대를 마리아나諸島の 동방에서 맞이하여 海戰을 하는 작전이며, 일본해군에서는 이것을 「邀擊作戰」이라 했는데, 이것은 先守後功(defensive-offensive)의 전략이었다. 이것은 30년 이상 변하지 않았고, 일본해군의 傳統的·正統的인 對美戰略이 되었으며, 그들의 군비, 편성 및 교육·훈련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1941년 봄, 대함거포주의에 입각한 함대결전을 지향하는 軍令部の 군비계획의 예산화를 둘러싸고, 海相官邸에서 해군성·군령부의 수뇌회의가 열렸다. 거기에 출석했던 航空本部長, 井上成美 中將의 手記와 그의 「新軍備計劃論」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군령부의 설명에 의하면, 다만 미국이 전함 A隻을 가지니, 일본도 8/10A隻이 필요하다. 미국이 航母 B隻을 가지니, 우리도 반드시, 8/10B隻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미국의 군비에 추종하여, 각종의 함정을 몇 배 가져야 한다는 상투적인 계획이며, 그 사이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싸움은 할 것인가, 그 싸움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몇척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도 없고 계획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나라의 國情의 특징과 創意가 풍부

22) 實松 謙, 「海軍大學教育」(東京 : 光人社, 1975), pp. 194~196.

한 군비를 가져야 하는데, 이 계획에는 조금도 自主性도 없고 또 特異性도 없었다. 이런 杜撰한 계획에 반대한 국비를 지출할 정도로 일본은 부자나라가 아니며, 가령 이 계획대로 군비가 완성되어도 미국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 같은 돈을 쓴다 하여도 좀 더 현명한 사용법이 있다. 군령부는 이 요구안을 철회하고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井上은 자기의 주장인 「新軍備計劃論」을 해군대신에게 제출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기가 발달한 오늘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주력함대와 주력함대의 결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②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전함을 건조할 필요가 없다. 적의 전함이 몇척 있어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航空兵力이 있으면 모두 격침시킬 수 있다.

③ 육상 항공기지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해군 항공병력의 주력은 기지 항공병력이어야 한다.

④ 對美戰에 있어서, 이들 육상기지는 국방병력의 주력이며, 태평양에 산재하는 섬들은 하늘이 준 보배이며 대단히 중요하다.

⑤ 對美戰에서는 이들 基地 爭奪戰이 반드시 主作戰이 된다고 단언한다. 말을 바꾸어 한다면, 상륙작전 및 방위전이 주 작전이 된다.

⑥ 이런 관점에서 이들 기지의 戰力의 지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지의 요새화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⑦ 따라서 기지 항공병력 제일주의로 항공병력을 정비·충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함, 순양함 등은 희생해도 좋다.

⑧ 일본이 생산하고 또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兵力은 두번째로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⑨ 잠수함은 기지방위에도, 통상보호에도 그리고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함종이기 때문에 세번째로 고려하여 충실히 해야 한다.

井上은 戰後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즉, 개전 초두에 우리 해군기지 항공부대가 남지나해에서 영국의 전함 2척을 격침했을 때, 그 전과를 기뻐한 것은 당연했지만,

戰前의 나의 예언이 그 싸움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이 나로서는 더 즐거웠다. 그리고 다른 예언, 경고도 모두 실전에서 증명(일본이 패배하는 쪽으로)되었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였고 또 슬프기도 했다.

井上의 견해는 개전 후의 戰局의 推移를 예언한 卓見이었다. 그러나 比率主義(8割主義)와 대함거포주의에 의한 함대결전에 사로잡힌 軍令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전후에 슬회했다. 즉 하다못해 2~3년 빨리 제안하여 실행에 옮겼더라면 좋았는데, 1941년 봄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작전 그리고 2일 후의 나니가베인은 80 T형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확실하게 알려 주었다. 이처럼 대함거포에서 항공 주병에로의 시대의 변천을 재빨리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한 것은 미국이었다. 반면 일본은 그때까지도 대함거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가, 1942년 5월 미드웨이해전에서 참패하고 주력의 항공모함을 거의 상실한 후에야, 전함 「시나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서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해군의 敗因을 상세히 설명하기에 지면이 없으나, 간략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sup>23)</sup>

- ① 희망적 관측으로 비관적 정보를 억눌러 버리는 독선적인 정세판단
- ② 참모에게 맡긴 작전지도
- ③ 함대결전주의의 盲信
- ④ 「海戰要務令」의 聖典視
- ⑤ 美·日의 物的 격차 뒤에 있는 人材不足이 실은 海軍 大潰滅의 主因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곡을 찌른 얘기라 생각된다.

차원을 높여, 일본군이 2차대전에서 패한 주요 원인의 요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統帥權이 독립되어 있어서 政務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 換言하면 일본에는 國家戰略의 不在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 ② 1899년 12월에 개정된 戰時 大本營條例는 天皇밑에 두 참모장(육군참모총장과 해군군령부장)을 두게 되었는데, 육·해군의 통합지휘에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23) 池田 清, 「海軍と日本」(東京 : 中央公論社, 1981), p.v.

뿐만 아니라, 일본에 육·해군은 존재해도 국군이 없어졌고, 또 육·해군의 작전계획은 존재해도, 일본의 군사전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육·해군의 대립이 심하였다.

③ 이것은 일본국가의 기본적 구조에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었고, 따라서 전쟁지도 기구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④ 軍令機關에서 「統帥綱令」, 「作戰要務令」 그리고 「海戰要務令」이 用兵敎理로 군령에 의해 하달되었으니, 이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軍事理論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연구가 허용되지 않았고 또 학술연구의 경시 등이 겹쳐서 군사이론의 빈곤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더 많은 요인이 또 있었겠지만, 결국 일본은 섬나라인데, 육군은 대륙국가인 독일의 군사이론, 해군은 해양국가인 영·미의 군사이론을 도입했고 또 육군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여 명치유신부터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정치·전쟁지도를 했다는 데, 패망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VI. 맺는말

명치유신 후의 일본에 있어서, 육군은 대륙국가인 독일의 군사이론—주로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과 해군은 해양국가인 英·美의 군사이론을 적절하게 도입·발전시켰고 그것이 대륙정책(침략정책)과 결부하여 청일·노일전쟁의 승리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대륙정책이 과연 국익에 보탬이 되는가, 그리고 海島國인 일본에 있어서 國防의 주도권 논쟁, 즉 陸主海主 論爭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해군이 우세하고 타당했으나, 실세의 미약으로 인해 그후 국정전반에 걸쳐 陸主海從의 체제가 되어 1945년 8월에 무조건 항복으로 敗亡했다.

군사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서양의 군사이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주로 용병이론, 특히 작전술·전술에 치우치고, 국가전략이나 전쟁철학에 관심이 적었는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제1차대전을 통해 전쟁은 용병적 차원(작전술·전술)을 넘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해졌고 또 장기화·총력화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에서는 현실전쟁이 그의 思想體系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전쟁을 추구함

으로써 軍事에 대한 政策優位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군국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특히 해군의 군령기관에서 발간한 「海戰 要務頌」은 대마도해전의 승리를 거치면서 대함거포에 입각한 함대 결전사상이 뿌리를 내려, 그것이 해군의 福音的 教範 내지 이데올로기화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적·군사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1941년 井上 提督의 「新軍備計劃論」은 해군의 항공세력화 계획이었으나, 대함거포주의자의 벽을 허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상대로 태평양전쟁이 진행되었던 것이니, 이것은 일본 해군으로서 패전과 망국으로 직결되었다.

요약컨대, 일본의 패망은 군사이론 연구의 빈곤과 경시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통일된 한국에 있어서도 陸主海主 論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리라. 이 문제는 그 때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국의 역학관계와 군사정세 및 한국의 대응능력에 의해 결정된 문제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대륙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海主陸從의 해양정책을 구사하여 貿易立國·海洋活用과 발전을 꾀함으로써 평화와 번영 및 자주국이 되는 것이리라. 그리고 해군의 간부요원은 해군의 군사이론 뿐만 아니라, 군사이론의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반도국에 적합한 해군의 전략·전술을 창안해야 할 것이다.